

월요광장

‘작은 연못’과 ‘色是空’을 추억하며



채 희 운
소설가·광주여대 교수

아권이 자멸을 향해 ‘실국열차’를 탔네. 더하기를 해도 힘이 부칠 터인데, 빼기를 하면 박살 나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행태에 대한 내 주위의 시각들을 요약해서 분류하자면 두 가지이다. 자멸을 향한 유한계도에 들어섰다가거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가비가 되지 못하면 호흡을 못하는 종류들이라는 것.

도무지 양음(陽陰)이 부딪고 돌면서만 들어 내는 울려(律呂)의 조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막영이’ 부류들이라서, 우주가 질서라는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상이 사람들의 성정의 융화에 의해 굴러가는 것을 거스른다. 그러한 자들은 패도적이어서 맹자에 의하면 결코 위정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친구의 비분강

개를 보며 나는 문득 양희은의 ‘작은 연못’과 장윤환의 연극 ‘색시공’을 떠올렸다. 그들의 답론과 하나도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오늘의 우리 현실은?

우리는 그 시절, ‘작은 연못’을 부르며 ‘색시공’을 연습했다. 그 해 아주 추운 초겨울이었는데, 12월 28일 공연 예정으로 JYC의 작은 사무실에서 찬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연습했다. 난로 하나 없이 창문을 꼭꼭 닫고, 압박 같은 커튼을 쳐어도 어김없이 스며드는 초겨울 추위로 우리는 매우 힘이 들었다.

우리에게 공연을 제의했던 연출자는 소리북 하나로 모든 음향을 조정했다. 그래서 가끔 소리북을 이용하여 반주를 맞춰 노래하며 추위를 이겨 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작은 연못’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루 궁둥이만큼 작은 연못에 살던 두 물고기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 한 놈이 죽자 시체의 오염 때문에 이긴 놈도 죽는다는 노래와 한 스승 밑의 두 뛰어난 제자들이 의발(衣鉢) 전수의 정통성이 서로 자에게 있다가 맞서는 바람에 양패구상(兩敗俱傷·양 쪽 모두 막대한 상처를 입음)으로 둘 다 패배하고,

다른 놈에게 승리를 헌납한다는 내용이 었다. 전자는 우리 민족의 분단 양상을, 후자는 소위 한국의 양김씨에 대한 풍자였으니, 그 닭은꼴에서 오는 친화성 있는 노래와 연극이었으니, 잠재의식에서 우리는 그 노래를 자주 불렀던가 보다.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1975년 무렵일 것이다. 대학에서 연례행사로 했던 공연이 끝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선생님이 젊은 연극학도를 소개했고, 그는 서울에서 가져 온 딱끈딱끈한 연극 한 편을 공연하자고 했다. 배우 두 명에, 연출과 조연출 등 4명이 전부였다.(조연출인 나는 무대에는 못 서고 겨우 스승 역할인 목소리로만 등장했다)

그러나 재밌었다. ‘코카콜라를 달라는 자식에게 펄스콜라를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등의 성서를 파라프레이즈(Paraphrase·변주)한 것도, 스티니파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스승의 유지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상생(相生)을 뒤틀어 풍자한 것이다. 범구경의 한 대목 등도 연습하는 내내 우리의 즐거움이였다.

물론 그 연극은 대중 앞에서 공연할 수 없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대학에서 연출을 전공했다던 우리의 연출가가 끝

내 말해 주지 않아서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시내에 계시하기 위해 인쇄했던 우리들의 공연 포스터는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수거되고, 파손되었던 기억만은 아직도 생생하다. 공연은 할 수 있으나 대중들을 불러 모아, 공연장에서는 막을 올릴 수 없었던 현실이 이제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말이다.

아무튼 두 달 동안 우리들의 모든 노고는 무위로 그칠 뻔했으나 다행히 YMCA의 시민단체 연합 송년 행사에서 단 1회지만 공연을 할 수가 있었다. 조병도 없었고 막도 없어서 그야말로 초라한 무대였지만, 그 공연이 끝나고 받았던 박수 소리는 어찌저찌 선명하다. 내 가슴 속에 일었던 사회적 공분(公憤) 역시 또렷하게 남아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공분일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자멸로 가는 실국열차는, 시민의식을 결집하지 못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70년대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의 패도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세밑에 화정(和靜)과 율려와 조화를 떠올려 전환적 변화를 꾀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올 한 해 힘겹게 넘어 온 민중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일 것이다.

법조칼럼

변호사를 ‘사다’



김 대 권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 재판한다고 차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물론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오해할 소지도 다분하다. 위의 말을 한 분도 아마 차별을 받는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불편했다. 내가 오해를 샀기 때문만은 아니다. ‘변호사를 사다’라는 표현이 불편했다. 변호사를 사다니, 변호사가 물건도 아니고…

민사소송법에 선임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사다’라는 표현이 별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호사가 출석해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향해 ‘출 돈이 없다면서, 변호사를 살 돈은 있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위 표현이 너무 법정에서 남발되는 경우에는 간혹 발언에 개입하여 “변호사는 선임하는 것이지,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라고 정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가 주재님께 혼쾌하다고 느낄까봐 매번 개입하지는 않는다.

불편함의 근원을 찾다가 ‘사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았다. ‘사다’의 첫 번째 뜻은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였다. 변호사가 물건이나 권리는 아니며, 위 뜻은 변호사를 사다는 표현에 들어맞지 않는다. 다른 뜻 중에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부리다’라는 뜻이 있었다. 예문으로는 ‘집꾼을 사서 이삿짐을 날랐다’라는 문장에 제시되어 있었다. 위 뜻에는 어느 정도 들어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변호사를 사다는 표현이 우리말 어법에 크게 어긋나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편하다. 아무래도 사람을 사다는 표현은 그 사람을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으니 그 사람은 나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느낌도 든다. 사람이 하는 일의 중에 사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들이 있을까? 의사를 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부동산 등기 사무를 법무사에게 맡

길 때에도 법무사를 사다는 말을 쓰지는 않은 것 같다.

아마 국어사전에 예시된 집꾼도 면전에서 사다는 표현을 쓰면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고, 변호사를 사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누군가 사다는 표현을 쓴다면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변호사가 아닌 내가 듣기에 불편한데, 직접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할 것인가. 그 말이 통용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표현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판사가 되어 법정에 매주 들어가 시작한 지도 어느덧 6년이 흘렀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법정의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몸소 체감한다. 법정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소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법정에서 하는 말에 상호 존중의 마음을 담는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진 법정 모습이 될 것이다.

기 고

작가들이 행복한 레지던스 났으면



임 희 진
화가

에서 생활하면서 작품 또한 밀도를 더해 가고 편안해지는 작가들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제주 레지던스의 경우 작가들이 개인 작업공간에서 창작하고, 공동 공간은 참여자들의 재능 기부로 꾸미고 운영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작가들이 스스로 레지던스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그 일부 공간을 카페갤러리로 운영해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가령 A라는 작가는 월~목요일까지 개인 작업을 하고 금~토요일은 공동 작업 공간에서 재능기부를 겸해 카페를 운영한다. 일요일은 자유시간, 즉 쉬는 날이다. 작가 B는 월요일에는 쉬는 날, 화~수는 재능기부 겸 카페운영, 목~일요일은 개인 작업을 한다. 카페갤러리 수입은 소소한 경비를 제외하고 작가의 몫이기에 “별이까 쓸쓸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지역 작가들은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기 힘든 현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작가들의 참여도가 높은 곳이다. 풍광이 빼어나기 때문에 6개월가량 머물면서 작업하려는 젊은 작가들도 많다. 제주

하나?”라고 탄식한다. 한쪽에서는 여행 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지역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라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레지던스 참가를 알바로 생각하며 ‘부과된’ 프로그램을 소화하느라 힘들어하는 작가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왜 제주에서 작업하려는 작가들이 많을까. 그 의문의 실마리는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색다른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제주에도 젊은 작가지원(만 35세 이하) 프로그램은 많지만 중장년층 작가들을 지원하는 경우는 적다.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 2년 전새로 도입된 게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선·후배 작가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예술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은 멘토와 멘티가 서로 배우며 배려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데 있다. 젊은 작가들은 무형의 자산인 선배들의 노하우를 물려받는다. 홀로 작업하는 젊은 작가들은 중견 작가들에게 작품평가를 받을 수 있고, 중견작가들은 젊은 화가들과 교감하면서 참신함을 체감한다. 이른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다.

젊은 작가들은 멘토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멘토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까지 전수받기도 한다. 멘토의 도움으로 제주 뿐 아니라 국내외 지역에서 자신의 작품과 전시를 선보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멘토링 시스템은 멘티가 일정 기간 작업하고 작품의 질과 양적 습득과정을 익히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보통 1년 과정이다. 작업결과가 좋은, 즉 멘토와 호흡이 잘 맞는 멘티는 2년 연속 같은 멘토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젊은 작가(멘티)가 제주 외에 외부 다른 지역에서도 멘토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단 이력서 및 첨부자료로 멘토로서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예향 광주’도 지역의 장점을 더욱 부각하고 창작을 장려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젊은 작가들이 선배들의 경험을 토대로 예술적 역량을 키운다면 광주예술의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할 것이다. 문화는 교류와 소통이다. 타 지역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 분석해 장·단점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社 說

김동철 의원도 탈당…다시 꿈틀거리는 야권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문병호 의원 등과 함께 안철수 신당을 창당하는 작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치와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철수 신당”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의 탈당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뒤흔치거나 이후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에 이은 ‘후속 탈당 4호’이며 야권의 텃밭인 광주에서의 현역 의원 탈당 1호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앞으로 연쇄 탈당 여부 등 호남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호남의 민심은 안철수 신당을 대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차기 대선 야권후보 지지도에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상당한 폭으로 따돌린 가운데 특히 호남에서는 안 의원에 대한 지지도(48%)가 문 대표

(27%)의 거의 2배 가까이 된 것이다. 이는 안 의원이 추진 중인 정치세력화 구상이 탄력을 얻어 야권 재편을 본격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어제 탈당을 선언한 김동철 의원도 다른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대해 “순차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에서는 결국 강기정 의원만 빼고 전원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주류를 제외한 5명 정도가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신당이 탄력을 얻게 되면 전정배·박주선·박준영의 신당과 함께 야권 재편이 복잡할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야당이 연합하지 않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은 그 누가 됐든 ‘무책임한 폭력’이 아닌 ‘창조적 파괴’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밸리 활성화 지자체 지원 절실하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에너지밸리 참여 업체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에너지밸리의 조기 정착을 위해 먼저 나서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광주시와 전남도 및 나주시의 대처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에서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한 77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이들의 다양한 애로가 쏟아졌다. “에너지밸리가 들어설) 산업단지 분양을 받았지만 공단 조성이 늦어 공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용도와 업종 분류도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그동안 지자체들의 지원이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초적인 생활 민원 또한 빠지지 않았다. 나주 시내와 혁신도시 간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출퇴근이 불편하고, 중소기업 직원은 사택 지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교육 문제 때문에 전국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 가운데 빛가람혁신

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런 불평들은 아직까지 지자체의 노력이 한층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에너지밸리는 한전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전력·에너지의 수도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400~500개의 에너지기업과 연구소 및 협력단체를 유치하게 된다. 이처럼 에너지밸리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한 발 앞서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할 것이다. 행정·생활 서비스의 수요자인 입주 예정 기업 관계자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 할망정 불만이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활동의 근간이 될 공단 조성 및 부대 조치를 서두르고 에너지밸리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생활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아래도 안 끊을래?”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최근 새로운 금연 홍보 영상을 내놓은 복지부의 속내가 아닐까 싶다. 이 영상에는 소비자 3명이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후두암 1mg 주세요”, “폐암 하러 주세요”, “뇌졸중 2개 주세요”라고 말하며 담배를 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동영상은 직설적이며 자극적 이어서 지금까지의 광고와는 사뭇 다르다. 애연가들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금연 홍보 영상이 과장돼 있고, 담배를 죽음으로 연결하는

리의 광고는 점잖은 수준이라는 입장이 다. 의료계에서도 흡연이 암의 강력한 유발 인자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한다.

이같이 담배는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며 독초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약초로써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지기도 했다. 조선시대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담배가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 에 도움을 주며, 가슴이 답답할 때 효과적이고 한겨울 추위를 막는 데 유익하다”고 적혀 있다. 정조는 시문집 흥재전

서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남령초(담배)만 한 것이 없다. 우 리 강도의 백성에게 배

금연 광고

한국 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광고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또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 러브 스모깡’은 금연 홍보 영상이 기호품 구입을 죄악 시해 흡연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의 부당·허위·과대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외국 금연 광고는 폐암이 걸린 처참한 모습의 환자 인터뷰를 실거나 폐암 환자의 폐나 뇌 등을 찍은 화면이 나온다면, 우

풀어 혜택을 함께하고 효과를 확산시켜 천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한다”면서 흡연 정려책까지 천명했다.

의약품이 미비했던 시기에는 잘못된 의료 지식으로 인해 병을 치료한다며 담배를 권해 오려라 병을 만들기도 했을 것이다. 담배가 해로운 건 명약관화한데, 무엇보다도 매년 중학생 흡연율이 오르고 있어 걱정이다. 금연은 질병 퇴치나 독감 예방과도 같은 개념이다. 또한 금연 광고는 공익에 부합되므로 더욱 꼼꼼한 내용이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채희중 사회2부장chae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7-9500>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96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
| 정치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918) | 사 진 부 2200-693 |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사 회 부 2200-663 | 조 사 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대표 FAX 222-4267)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